

# 몸의 형상 통해 드러낸 인간의 의미

박치호 '다시 일어서는 몸'展...21일까지 전남도립미술관

회화, 조각, 드로잉 등 70여점 작품 선배  
개인 상처, 사회현실 거대한 몸으로 표현



박치호 작가

‘모든 사람은 상처를 안고 태어났고, 신체는 상처의 집합체다. 이를 직면하고 치이는 과정이야말로 나를 찾는 과정이다.’  
박치호 작가 개인전 ‘Big-Man : 다시 일어서는 몸’이 오는 21일까지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열린다.  
전시에서는 그의 신작 20여 점을 포함해 회화, 조각, 드로잉 등 70여 점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여수 경도라는 섬에서 태어난 작가는 추계예술대를 졸업한 후 현재까지 줄곧 여수에서 작업하고 있다.  
1994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예울마루, 남포미술관,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 등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을 진행했다.  
전남지역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인 그는 바닷가 옆 작업실 천장 높이의 대형 캔버스에 짙고 무거운 색채와 불안정한 자세, 분절된 구도로 신체를 표현한다.  
작가는 개인의 상처와 사회 현실과의 관계를 어둡고 ‘거대한 몸’으로 표현한다. 이는 노골적이고도 원초적인 언어이며 작업통로이자 목표이기도 하다.  
몸은 세삼스럽지 않은 주제일 수 있지만, 부재 혹은 결여된 신체 일부는 작가의 정체성에 관한 도상적 기호로 소통되고 있다.  
그는 표현된 신체에 ‘부유, 표류’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신체 일부로써 표현한 것과 표현하지 않은 것 또는 넓디넓은 바닷물에 내던져진 표류물과 같이 미완성·불완전의 것을



박치호작 '부유'

<전남도립미술관 제공>

거대하게 그린다.  
불안정한 테두리 안에서 정착되지 않고 표류하며 떠나는 것 혹은 잊혀진 것들, 바다에 무심히 버려진 잔해들처럼 삶의 잔재들에 오랜 시선을 둔다.  
‘파편화된 신체의 형태는 바다의 부유물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작가는 내면과 깊이 대화하는 관찰자이자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낸다.  
이번 전시 주제를 대표하는 작품 ‘다시 일어서는 몸’은 화면 안에 윤곽선이나 뚜렷한 색 대비 없이 불분명한 자세로 불안정한 관람객들의 시선을 유도한다.  
이는 상실과 삭제, 망각 등 온전하

지 않은 존재의 결핍에서 오는 적막감을 드러낸다.  
또 신작 ‘드로잉’과 ‘두상’ 시리즈 입체 작품에서는 분절된 구도로 전체의 관계 속 유기적 독립성을 발휘하며, 의식과는 무관하게 떠오른 단상들을 긴장감 있게 보여줄 예정이다.  
작가는 “개인을 바라보는 관찰자이자 공감자의 역할로서 불안정한 사람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울 수 있고, 자신의 한계에 대한 인정과 상처에 대한 성찰이 중요하다”며 “기억된 상처가 저장된 겉고 거대한 몸의 형상을 통해 성장하고 성장하는 인간의 의미를 사유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전통연희예술단 굴령쇠 공연 모습

<광주문화재단 제공>

## 전통연희예술단 굴령쇠 ‘너에게로가 꽃이 되었다’

내일 전통문화관 토요일공연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20일 오후 3시 토요일공연에 전통연희예술단 굴령쇠 초청 무대를 선보인다.  
전통연희예술단 굴령쇠는 한승철 대표의 5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우리 전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춘 창작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너에게로가 꽃이 되었다-무무(巫舞)’를 주제로 선보이는 이날 공연은 동해안 별신굿 장단을 이용한 ‘동해안 별신굿 시나위’로 막을 올린다.  
이어 남도 굿 색깔을 표현한 ‘지천춤과 살풀이춤’, ‘육자배기’, 경기도당국의 터널춤 장단과 잇토리, 도살풀이 장단을 기본으로 한 ‘진쇠춤’ 무대가 펼쳐진다.  
마지막 무대는 관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흥겨운 분위기의 ‘부포놀이’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 연출은 조미연, 기획은 차예지 씨가 맡았다.  
출연자는 북·징·무용 한승철, 장구 박성민(경북도립국악단원), 무용 이서현, 쇠·무용 차예지, 모듬북·징·바라 유송일, 소리 김선이(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호 흥보가 예능보유자), 태평소·대금 정희완(남도민속놀이문화예술원 음악감독), 아쟁 서영호(경주신라문화재 국악대제전 대령상), 피리 오영미(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원), 장단 정인성이며, 사회는 김산옥이 맡는다.  
공연은 전통문화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통문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기자

# 보이지 않는 가치, 흔적 그리고 기억

유지원 '공간의 구조화'展...20일까지 서울 화인페이퍼갤러리

‘소외된 공간 속 파편화된 기억을 재구성하다.’  
지난 6월 광주미술상을 수상한 유지원 작가의 개인전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오는 20일까지 연남동 화인페이퍼갤러리에서 개최되는 ‘공간의 구조화 Space Structuring’전이다.  
유지원 작가는 ‘가치의 재구성’이라는 주제 아래 잊혀진 개념, 공간, 존재 또는 기억과 역사의 흔적을 소재로 조각·설치·영상 등 복합매체 설치작업을 하고 있다.  
오랜 외국 생활을 뒤로 하고 최근 한국에 정착한 작가는 개발의 속도전으로

점철된 한국사회의 ‘배제된’ 물질 혹은 장소의 본래적 속성에 주목하고 이를 연구해 왔다.  
작가는 이를 통해 개인과 집단의 관계 의미를 추출해 예술적 실천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식적 가치’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시공간 안에서 반복되는 사회 문화적 의미의 생성과 소멸을 건축적 이미지들을 차용하며 표현하거나, 건축 재료들을 이용해 구성함으로써 재정의·맥락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일 작가의 작품들은 개인이나 집단의 기억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가

치, 흔적 그리고 기억에 대한 시각적 사유로서의 결과물이다.  
관객들은 전시장이라는 화이트큐브의 규격화된 장소 안에서 기능을 상실한(배제된) 물질 혹은 장소들이 전복돼 재구성되는 경험을 하며 가치의 재발견에 동참한다.  
작가는 “‘가치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는 사회와 역사적 메시지 같은 의도된 결론이 아닌, 생성과 소멸의 과정 안에서 파편화된 흔적들이 답보하는 개인 내지는 집단의 사유에 관한 것들이다”며 “일상을 구성했던 개별적 존재들을 특유의 구조적 시각 어법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이들의 본래적 구제성이 추상적인 사물이나 개념으로 전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유지원작 '축적된 공간'

## 한국학호남진흥원, 호남학 연구기관 간담회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지난 17일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호남학 연구 및 진흥을 수행하고 있는 유관기관 등과 ‘호남학 연구기관 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호남학 연구기관 협의회 구성과 통합 운영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기관들은 현재 호남권 소재 호남학 관련 중·중대 및 유사 사업을 방지하고, 호남학 관련 중심점 역할을 담당할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 호남학 관련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 기반 확장 및 학술 교류를 추진해 범

호남학 관련 연구 활성화 및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유관기관으로는 광주문화재단, 광주전남연구원, 전남문화재단이 참여했다. 대학에서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순천대 지리사관문화연구원,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전북대 이재연구소,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조선대 인문학연구원 등이 참여했으며, 학회에서는 호남사학회 등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 포용해 호남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명진기자

방수제·바닥재·혼화제·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휴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sup>2</sup>  
 [DK-303] 상도코팅방수제 (녹색, 회색) 셸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sup>3</sup>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방수제 / 탐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 & 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러움,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들뜨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시용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자매품 바르는 황토벽지 천연황토코팅제 DK-308 황토리**

한강을 생각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CHEMICAL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